

# 회원 2,500명...역경사업 밑거름



## 신행연장

## 동국역경원 후원회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우리 속담이 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주 모으면 큰 것이 된다는 뜻이다.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불자 한 명 한 명이 정성스레 모은 후원금이 대장경 역경사업의 밑거름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시 40분 동국대 대강전. 몇몇 보살들이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고, 또 다른 서너 명의 보살들은 씩씩이 절을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동국역경원 후원회 회원들. 오늘은 후원회 정기법회인 삼장법회가 있는 날로, 매월 둘째주 금요일 오후에 이곳에서 모인다.

동국역경원 후원회(회장 석주)는 30년 동안 한문으로 된 고려대장경을 우리말로 번역하고 있는 동국역경원(원장 월운)을 돕기 위해 첩보사 조실 석주 스님을 비롯해 월운·정후·무상·일연 스님 등의 발기로 95년 7월 결성된 단체. 현재 10억원이 넘게 투입되는 한글대장경 역경사업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1천원, 2천원씩 성금이 모아지기 시작했다. 심어명으로 시작된 후원회원은 벌써 2천5백명을 넘어섰고 그동안 모은 후원금만도 5억원에 이른다.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 다섯 가지 쌓임이...” 삼귀의에 이은 한글 반야심경 봉독, 삼장법회 발원문 낭독으로 법회가

진행됐다. 곱게 합장한 권경량심(46·남양주시 도농동) 보살은 어때때도 마음이 가볍다. 처음엔 후원금만 내면 불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삼장법회에 참석하면서부터 신심이 깊어지고 절친한 도반들도 생겼다. 지금은 후원금을 내는 것 ‘이 아니라 오히려 불법을 배우는데 ‘후원’을 받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

법회에 처음 참석했다는 엄자인(56·서울 노원구 상계동) 보살은 불문을 꺼내 읽은 스님의 법문을 열심히 읽고 있다. “자기가 좋아하는

### 후원금 5억여원 모금 매달 삼장법회 신심다져 성지순례등 신행 열심

경을 읽고, 쓰고, 남에게 이야기 해주는 것은 큰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공덕은 몇 겁이 지나도 꺾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스님의 법문에 엄 보살은 무엇인가 이해를 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인다. 외손녀 수연이를 데리고 법회에 참석한 이주(66·서울 청량리)보살은 대장경 역경사업이야 말로 불교중흥을 위해 꼭 필요하다라는 소신에서 후원회원이 됐다.

이들 후원회원들은 자신들만이



◇동국역경원 회원 50여명이 9일 동국대 대강전에서 월운스님을 모시고 삼장법회를 봉행하고 있다.

후원금을 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98년부터 월원 심원사, 양산 통도사 화엄선림, 서초사암연합회 신년하례법회 등 전국의 사찰을 돌며 후원회를 홍보했다. 실제로 후원회 회원들은 후원회 홍보가 생활화 되어 있고 심지어는 수십명을 후원회원으로 가입시킨 불자들도 많다.

지금까지 1백여명을 후원회원으로 가입시킨 안정각심(72·서울 마포구 도화동) 보살은 “역경사업을 홍보하는 일이야말로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파하는 일이라 믿는다”며 “스님이 큰 원을 세운 것만큼이나 저희 후원회원들도 크게 원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고 웃음을 짓는다.

후원회 회원들은 삼장법회 이외

에도 역경사업의 현황을 알리기 위해 회보를 발행하고 봄·가을에는 성지순례 순례 법회를 가지는 등 신생활에도 열심이다. 개인적으로 복지시설이나 유치원 등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회원들도 늘고 있다.

회원들은 한결같은 바람을 가지고 있다. 많은 불자들이 한글대장경을 읽었으면 하는 것이다. 널리 보급되면 보급될수록 부처님 세상에 가까이 간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회원들 스스로도 한글대장경을 읽는데 시간을 아끼지 않는다.

동국역경원 후원회회는 우체국 012328-0093298 (예금주 강계술), 국민은행 204-21-1253-793(예금주 김성구), 김두석 기자 (doobi@buddhapia.com)

## 주제가 있는 법문

# 실상 바로보는 지혜 팔만사천 법문의 요지

불자라면 현상(現象)과 실상(實相)을 분명히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모두가 현상에 불과합니다. 장시간 존재하는 그런 현상에 불과합니다. 영생불멸한 진여(眞如)의 실상은 우리 중생이 볼 수 없습니다. 부처가 되어야 그 자리와 홀연히 일치하는 것입니다. 영생불멸한 그 자리로부터 인과의 법칙에 따라 잠깐 이렇게 저렇게 모양을 나뉠 것이 현상인입니다. 우리가 있다고 생각한 것이 중생 차원에서 있다고 보는 것이지 부처의 경지에서는 일체만유가 곧 공(空)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공(空)인가?  
이것은 일체 존재가 물질이 아닌 진여(眞如)로부터 인연(因緣) 지어져 아주 잠깐



법홍스님  
대구  
보은사 주지

지혜가 바로 부처님지혜고 팔만사천 법문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행주 좌와’ 하는 생활에 바쁘다 보니 보은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러한 본질적인 중요함을 잊어버리고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니다. 예를 들면 먹는 것이나 입는 것, 사는 것이나 또는 남녀간이나 친구기간등 어떤 관계나 모두가 다 완벽한 그러한 관계를 추구합니다. 그러나 그런 추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근본 번뇌, 고(苦)가운데도 있듯이 ‘구부득고(求不得苦)’ 구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가 없어 괴로운 것입니다.

자기 분수에 맞게끔 요구한다면 모르겠지마는 대부분 다 자기 분수를 떠나서 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어 항상 불만스럽습니다. 그때그때 변화 무쌍한 것이 살아있는데 중생들은 자기 좋은 쪽, 바라는 쪽으로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욕심으로 빚어 놓은 현상에 집착하는 공멸 불이지요.

밝은 지혜로써 우리의 실상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탐진치 삼독의 악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현상에 집착하지 않는 실상을 직관(直觀)하는 지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세간의 경제난국의 극복이냐 총체적 개혁이냐 하는 소리들 또한 우리 사회의 분수에 맞지 않는 행위의 업일진대 욕심마저 분수인양 가지고 하는 개혁이, 경제난국의 극복이 그 완결대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욕심을 버리고 우리 그 대로의 분수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난국의 극복이며 개혁일 것입니다.

### 현상에 집착할수록 중생몽 더 커질뿐

상(相)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상(相)이것은 본래(本來) 있는 것도 아니며 상주불멸(常住不滅)한 것도 아닙니다. 또한 순간 찰나도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머물지 않거니 똑 같은 것이 어디 있다고 생각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몸은 오늘도 같고 내일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이 보아서 같은 것이 순간 순간 변화되고 맙니다.

삼천大千세계가 생주이멸(生住異滅)합니다.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모르고 상관이 없는 진여(眞如)의 자리요, 그 자리가 바로 부처님 자리요 불성(佛性)이고 법성(法性)입니다.

번뇌가 있으면, 그 번뇌에 따라서 입과 몸과 뜻으로 죄를 범하고, 신구의(身口意) 삼업을 범하면 그때는 틀림없이 인생고(人生苦)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생고를 떠나고자 한다면 그 근원을 거슬러 무지(無知) 무명(無明) 때문에 고(苦)가 있는지를 우선 무지 무명을 떠나야 합니다. 이 현상과 실상을 바로 보는

## 생활속의 불교

## 나무가 실다워야 과일도 실답다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체제 지향적인 교육 환경 속에서 살아왔다. 그때문에 우리는 은연중 최고만을 선호하는 습성에 젖어버렸다. 뜻은 클수록, 목표는 높을수록, 성과는 장대할수록 좋다는 생각의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된 것이다.

뜻을 세우는 보람있는 인생의 출발 조건이다. 입지(立地)가 분명하면 삶은 틀림없는 대로 바랍부는 대로 사는 것보다는 한결 값진 것만은 틀림없다. 따라서 이왕 뜻을 세우 바에는 크고 높게 잡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다. 그러나 뜻이 크면 큰 만큼 마음의 부대낌과 육체의 노고도 따르게 마련이다. 그래서 인지 선인들은 한결같이 안분지족(安分知足)의 삶을 얘기한다. 과욕을 경계한 것이다.

넘치는 것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지나친 욕심은 삶을 망치는 근본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뭔가. 어떤 뜻을 세우는 나와 그것의 실천 방법이 있다. 뜻을 세우되 참답게 세우고, 뜻을 이루어가되 실답게 추구하라는 것이다. 단에는 원대한 목표표시고 세운 것이 망상이나 몽상에 불과한 것도 허다하기 때문이다.

참다운 뜻을 세운다 함은 무엇인가. 그것은 주체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입지의 주체가 불분명하고서 어찌 뜻이 바르기를 희망할 수 있겠는가. 고로 바른 뜻이라 함은 나는 누구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참구하는 일이다. 아무리 고원한 뜻이라 해도 내가 누구인

지 모른채 세운 것이라면 사상 누각에 불과하다. 고로 참나를 발견하는 것, 거기에 뜻을 두는 게 참된 입지이다. 나를 알고 나면 세계의 실상도 저절로 알게 되니 이 얼마나 눈부신 뜻 세움인가.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뜻만 세우면 길은 원하다는 것이다. 나무가 실다워면 과일도 실다운 것과 같은 이치다. 진작에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길을 닦아 놓으셨다. 따라서 우리들은 그 길을 따르기만 하면 된다. 열심히 아주 열심히...  
겨우내 움추렸던 몸을 활짝 펴고 또 새로이 시작하는 때다. 올해해 또는 전생애를 걸고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 바른 것인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할 계절이다. ■龍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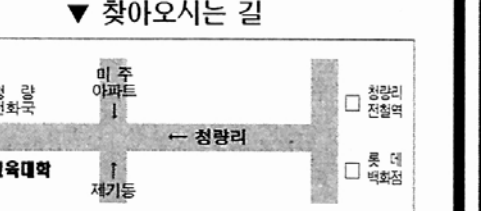
# 2001학년도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신(편) 입생 모집

귀의 삼보하옵고  
1989년 설립하여 불교의 전통의례·의식·범음(법패)을 계승·발전 시켜온 본 대학에서는 2001년도를 맞이하여 배움에 어려움이 많아 맥이 끊어져 가고 있는 불교의례의식의 진흥과정과 교리가 담고 있는 뜻을 좀더 체계있게 전승발전 시키고자 범음·법패·요장 및 작법등 예경의식 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불교의례의식에 관심있는 스님 및 불자님들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불자님·스님·포교사님들의 많은 문의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학장 계산 승 -

학과	교육내용	모집인원	비고
기본 교육과정	예경의식 및 기초교리 조·석예불, 불교의식, 시식	20명	6개월
전통 교육과정	상주권공 및 불교의식론 49재의식 및 천도재의식 (점안 및 제공의식)	20명	1년
연구 과정	요장, 작법, 안치비 등	10명	1년

- ▶ 교육시간 : 주 4회(月~木)
- ▶ 접수일자 : 2001년 2월 1일 ~ 2월 19일
- ▶ 개 강 : 2001년 2월 20일
- ▶ 원서 교부 및 접수처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교학처  
130-012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  
2동 604번지  
전화 (02) 967-7093



# 불교 전통의식 교육대학

# 21세기 신진학 포교학당

# 2001학년도 불교복지보건대학 신입생 모집

■ 개설 강좌

과 정	기 간	교육 실시	등록금
제 3기 포교사과정(포교복지사)	1년	매주 화, 수요일 오후 7시~9시	· 입학금 : 5만원(교재대 포함) · 수강료 : 월 6만원
제 2기 상담심리과정(자비상담사)	1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10시	· 입학금 : 8만원(교재대 포함) · 수강료 : 6만원(자격검정료, 집단수련비제외) · 본교 과정 등록자 및 포교사, 복지사 : 수강료 20% 할인
제 6기 불심호스피스(간병봉사자)과정	3개월	매주 화, 금요일 오후 2시~5시	· 수강료 : 월 6만원(교재대 포함)
제 2기 불교 점·뜸 포교봉사자	1년	매주 월, 목요일 오후 7시~10시	· 교재대 : 별도 · 수강료 : 월 15만원

- 구비서류 및 원서마감(선착순)  
구비서류 : 입학원서 1통(소정양식), 사진3매(반명함판)  
마감일 : 2월 28일(수요일)까지 (전화 접수 가능)
- 입학식  
3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

**불교보건복지대학** 명예학장 성오스님  
학 장 예도스님  
부산광역시 동구 초량 3동 1163-5 대야빌딩 4층  
대표전화 051-462-5670 팩스 : 462-5671